

# 복식 디자인에 표현된 주름에 관한 연구

- Issey Miyake 작품을 중심으로 -

김 미 성 · 배 수 정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오늘날 복식은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소재와 표현방법으로 인해 기능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무한한 창조적인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 중 'Pleats'를 이용한 복식 디자인은 시각적 조형미를 창출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것으로, 실루엣과 독특한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Pleats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 디자이너로 이세이 미야게(Issey Miyake, 1938 ~ )를 들 수 있다. 그는 동양적 요소와 새로운 소재 개발로 독창적인 세계를 펼쳐 전통을 통해 미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일본 디자이너이다. 그를 가장 유명하게 했던 디자인중의 하나인 주름을 응용한 디자인은 1989년에 처음 선보인 후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Pleats Please'라는 독립적인 라인을 전개함으로써 주름에 다양한 형태미와 컬러감각을 부가하여 컬렉션의 주요 아이템으로 성장, 발전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전개될 주름을 응용한 디자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이세이 미야게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복식 디자인에 주름이 어떻게 응용되었는지 그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전통의상에서 영감을 얻어 봉제와 재단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연스런 상태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곡선의 조화에 초점을 둔 자연친화적 의상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인체와 천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미 창조와 함께 형태미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미야게의 주름은 소재의 철저한 연구로 인해 구겨지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며 활동성이 큼과 동시에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95F/W  
Collection



<그림 2> '99 F/W  
Collection